

장성 ‘노란꽃잔치’로 브랜드 가치 입증

축제기간 축소에도 100만명 방문 대표 꽃축제 ‘우뚛’
KTX 주말 이용객 351%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톡톡

장성군의 황룡강 노란꽃잔치가 폐막된지 한 달이 가까웠음에도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남기고 있다. 장성군은 14일 “지난달 13일 막을 내린 노란꽃잔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들이객의 방문이 지속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꽃잔치는 올해 연이은 가을대풍으로 인해 개막일이 연기되면서 9일간 개최됐다. 지난해까지 2주씩 운영돼왔던 것을 감안하면 5일이나 단축된 셈이

다. 그러나 짧아진 기간은 축제의 흥행과 무관했다. 폐막일 다음날 집계한 올해 노란꽃잔치의 누적 방문기록은 100만명(장성군 추산 총 100만2천986명)을 훌쩍 넘었다. 황룡강 3.2km 구간에 핀 10억 송이 가을꽃과 황미르랜드의 100만 송이 해바라기 정원, 그리고 세계적인 정원을 재현해 놓은 유엔아이(YOU & I) 가든과 드레스 가든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

점이 축제의 흥행요소로 꼽혔다. 이 밖에 앵무새특별체험관과 같은 이색 체험부스 운영과 관람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꽃길 동선·그늘막 쉼터 조성, 주차장 확보 및 인근 도로 확·포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 엄선된 음식부스 마련 등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또 축제장에서 사용된 장성사랑상품권은 각종 할인 혜택은 물론, 군에 등록된 1천여개 점포에서 향후 5년 간 사용이 가능해 인기가 높았다. 관광객들이 장성에서 소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 장성군은 축제기간 동안 현장에서만 2억6천여만원의 상품권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축제기간 중에는 KTX 이용객도 급증했다. 지난 9월17일부터 장성역에는 하루 4회 서대전을 경유하는 목포-서울 간 KTX 노선이 정차를 시작했는데 축제기간 동안 평상시 대비 175% 가량 KTX 승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제기간 주말에는 351% 증가를 기록하기도 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노란꽃잔치의 열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향후 황룡강 지방정원 사업과 오색정원 사업, 꽃창포군락지 조성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노란꽃잔치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꽃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기자

연륙·연도교 추진 전략 모색
완도군, 22일 국회서 심포지엄

완도군은 14일 “서남해안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 ‘도서지역 연륙·연도교 건설 추진 전략’ 심포지엄을 오는 22일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남해안 미 개설 구간 연결 및 연륙·연도교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일 국회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완도군과 광주전남 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와 전남도가 후원한다. 심포지엄에서는 신우철 완도군수가 ‘도서지역의 연륙·연도교 왜 필요한가?’,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박사가 ‘약산 당목·금일 일정 간 연륙교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주제발표를 한다. /완도=윤보현기자

순천시·LH 광주전남본부
케어안심주택 업무협약

순천시는 14일 “지난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으로 주거분야 인프라 구축과 관련 ‘케어안심주택 공급·운영 관련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LH는 주택에 고령자 맞춤형 설계와 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해 고령자 주거 편의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공급하고 순천시는 운영주체로 노령 입주자를 위한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순천시는 2020년 초 남정동에 ‘1호 케어안심주택’을 개소하고 입주 어르신들을 위한 공유 주방과 통합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남정민기자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다도 체험 인기
곡성군은 최근 치매 예방 마을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12월까지 ‘찾아가는 다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다도체험은 수제 발효차를 마시면서 건강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심신 회복 프로그램으로 참여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곡성군 제공

해남군, 내년부터 보훈수당 확대 지급

참전명예·보훈예우수당 대상

해남군이 2020년부터 보훈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해남군은 14일 “국가 유공자 보훈수당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예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29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

유공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참전명예수당을 유족까지 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유족에게만 지급되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해남군은 지난달 기준 620여명의 참전 국가유공자와 390명의 유족에게 매월 참전명예수당 8만원과 보훈예우수당 5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번 대상자 범위의 확대로 350여명의 참전 유공자 유족과 200여명의 국가유공자가 보훈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

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수당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유족증(또는 확인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올해 안에 신청하면 2020년 1월부터, 이후 신청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가를 위해 몸바쳐 희생한 지역내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강진군, 가을 과일 변신 ‘딸기’ 본격 출하
육묘기술 향상 등 영향 수확시기 점점 빨라져

가을 과일로 변신한 강진 딸기가 본격 출하되고 있다. 강진군은 14일 “특유의 향기와 달콤한 맛으로 겨울철 대표 과일로 손꼽히는 딸기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육묘기술의 발달로 수확시기가 점점 빨라져 11월 초부터 맛 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강진군에 귀농해 도암면 계라리에 정착한 정철(35·사진)씨는 하우스에서 일주일에 두 번 딸기를 출하하고 있다.평균 가격은 1kg당 2만5천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수확 때마다 신바람이 난다. 딸기는 꽃을 피운 다음 밤에 심어야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이라 모종을 만들 때 많은 정성이 필요하다. 반면 꽃이 없는 딸기 모종을 심었을 때는 오히려 수확시기가 더욱 늦어져 1월 이후에야 수확할 수 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딸기재배 농가들에게 육묘기술을 교육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육묘 전문 연구를 통해 재배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딸기 전문팀에서 현장 컨설팅을 병행, 정작을 돕고 있어 딸기 농가의 호응을 받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딸기 농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모종 만들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난해부터 농가에 육묘시설을 지원하고 있어 딸기재배농업인들의 기술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남도로부터 2020년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한 강진군은 딸기육묘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정영복기자

‘영암 상호농협 조합원 화합한마당’ 성황

영암 상호농협(조합장 황성오)은 최근 상호을 농어촌복합체육관에서 조합원 화합을 위한 ‘2019년 상호농협 조합원 화합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석기 전남농협 본부장, 황성오 영암상호농협 조합장, 나용석 무안상호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을 비롯한 상호농협 관계자와 이보라미 전남도의원, 강찬원, 고천수 영암군의원, 오정현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장 및 관내의 조합장 등 지역민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축제는 상호농협 풍물패와 난타공연, 팔매라 공연이 식전행사로 열렸으며 개막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시상식, 대화사, 축사 및 격려사 순으로 진

행했다. 황성호 영암 상호농협 조합장은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농민 조합원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로 조합원과 농협 간의 화합은 물론 지역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상호 농협은 ‘농가소득 증대 및 건전 경영을 통한 행복한 농업인, 든든한 농협 구현’이라는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내실경영과 조합원 실익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조합원이 행복한 농협, 조합원이 잘사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영암=이봉영기자

영광소방서,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14일 “최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음성통화 외에 문자, 앱(App), 영상 통화 등을 이용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19 다매체신고란 청각장애인, 외국인, 의사소통이 곤란한 경우 등 음성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핸드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몸짓, 수화 등 현장정보를 영상으로 전송해 신고 접수가 가능하게 만든 신고체계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

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며 앱을 통한 신고자의 위치정보는 GPS로 위치를 확인해 기존의 기지국 위치보다 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영상, 문자, 앱을 통한 119신고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인, 외국인 등 음성신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활용, 빠른 신고로 위험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